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7년 02월  
석사학위 논문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유형의 군집과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의 관계

조선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김 지 윤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유형의 군집과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의 관계

The Relationships Between Clusters of Types of  
Mother's Reaction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  
and Child Emotion Regulation

2017년 02월 24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김 지 윤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유형의 군집과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의 관계

The Relationships Between Clusters of Types of  
Mother's Reaction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  
and Child Emotion Regulation

지도교수 오 지 현

이 논문을 심리학석사학위 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김 지 윤

## 김지윤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u>정 승 아</u>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u>김 택 호</u>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u>오 지 현</u> (인)

2016년 11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 목 차

<b>I. 서론</b> .....	1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B. 연구문제 .....	5
<b>II. 이론적 배경</b> .....	6
A.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	6
1.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	5
2.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유형 ..7	
a. 감정코칭 반응 .....	8
b. 과민 반응 .....	9
c. 감정축소 반응 .....	11
B.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13
C.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과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13
<b>III. 연구방법</b> .....	16
A. 연구대상 .....	16
B. 측정도구 .....	16
1.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척도 ..16	

- 2.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척도 .....17
- C. 연구절차 .....18
- D. 자료분석 .....18
  
- IV. 연구결과 및 해석 .....20**
  - A.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유형 군집분석 .....20
  - B.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군’과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22
  
- V. 논의 및 결론 .....24**
  - A.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군’유형 .....24
  - B.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군’과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간 관계 .....26
  
- 참고문헌 .....32
- 부록 .....39

## 표 목 차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	16
표 2. 각 척도 별 하위영역과 문항수, 신뢰도 .....	18
표 3. 최종 군집별 중심점 .....	21
표 4. 군집별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대한 일원변량분석 .....	23



## 그림 목 차

그림 1. 군집 프로파일 .....	22
---------------------	----

## ABSTRACT

### The Relationships Between Clusters of Types of Mother's Reaction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 and Child Emotion Regulation

Kim Ji Youn

Advisor: Prof. Oh, Ji Hyun Ph. D.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amine natural groupings of the sub-factors of mother's reaction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 The natural groupings were as follows; the emotion-coaching-reaction, the emotion-minimizing-reaction and oversensitive reaction. In addition, this paper also investigated individual differences in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by clusters of sub-factors of mother's reaction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 The subjects of this study consisted of 322 children. The data was analyzed using cluster analysis and one-way ANOVA. The results suggested four proper cluster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mother's reaction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 Cluster 1 was categorized as 'child centered-emotion coaching', cluster 2 was categorized as 'oversensitive-emotion coaching comorbid', cluster 3 was categorized as 'confused' and cluster 4 was categorized as 'emotion minimizing-unsupporting'.

Additionally, the differences between Emotion regulations in each cluster showed distinct points of interest. In terms of the adaptive emotion regulation, clusters 2 appeared to be more significant than cluster 1. And

cluster 3 and 4 showed the lowest level. Whereas cluster 3 showed the highest level in maladaptive emotion regulation, followed by cluster 4. And cluster 1 and 2 showed the lowest level.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d a deeper understanding on the operation of specific clusters of mother's reaction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 and emotion regulation.

*Keywords: mother's reaction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 emotion regulation*

## I. 서론

###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아동의 정서, 사회화 능력의 발달에 있어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며, 그 중 어머니는 자녀에게 중요한 외적환경으로 자녀의 정서적 유능성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다(정명자, 임유경, 김동례, 2011). 어머니가 일상생활에서 자녀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하여 반응하는 정서적 상호작용은 자녀를 정서적으로 사회화시키는 과정이다(Eisenberg, Cumberland & Spinard, 1998). 아동의 정서발달과 관련된 부모의 양육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Eisenberg 등(1998)은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반응에 주목하였고 이는 자녀의 정서발달 및 사회적 유능성과 높은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박서정, 2004).

Saarni, Munne 과 Campos(1998)는 자녀가 표현하는 정서를 행복, 즐거움과 같은 긍정적 정서와 분노, 슬픔, 두려움, 불안 등과 같은 부정적 정서로 분류하였다. 그 중 어머니는 자녀가 긍정적 정서를 표현 할 때 보다 슬픔, 두려움, 분노와 같은 부정적 정서를 표현할 경우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며(Siegel & Hartzell, 2004), 다양한 정서적 반응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자녀의 정서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자녀의 부정적 감정표현에 대해 지지적 반응을 보이는 경우 자녀는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는 능력이 발달하여 공감능력이 높았으며, 적응적인 대처능력과 높은 사회적 유능성을 보였다(Denham, 1997; Eisenberg, Fabes & Murphy, 1996; Gottman, Katz & Hooven, 1996). 반면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을 지속적으로 받아온 자녀는 자신의 정서를 억압하고 숨기며 정서유발 상황에서 강한 불안을 느껴 부적응적으로 정서를 조절하고 표현할 가능성이 높다(Gottman et al., 1996; Gottman, Katz & Hooven, 1997). 이렇듯 어머니의 반응패턴은 자녀의 정서사회성 발달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Yap, Allen, Leve & Katz, 2008),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지금까지의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반응과 관련한 연구들은 어머니의 반응을 크게 지지적이거나 비지지적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고 있다(Eisenberg & Fabes, 1994; Eisenberg et al., 1998; 노지영, 정윤경; 2010).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특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에 오지현(2013b)은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을 어머니가 어떻게 수용하고, 어떠한 대처를 하는지에 따라 감정코칭, 과민, 감정축소 반응으로 구분하였다. 아동의 부정적 감정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를 여러 하위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은 보다 구체적인 어머니의 정서적 반응 유형에 대한 깊이 있는 탐색을 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유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감정코칭 반응은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자녀의 감정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반응과 더불어 아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끌면서 행동에 한계를 정해주는 유형이다. 어머니가 아동의 부정적 감정을 인정하고 공감해주며 문제해결을 돕는 반응을 할수록 아동의 공감 능력은 높아지며(오지현, 2015), 정서지능이 높아지고, 탄력성의 하위 요인 중 자기 효능감과 부정적 감정의 인내, 긍정적 지지관계, 통제력, 자발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오지현 2013a; 오지현 2014).

다음으로 과민반응은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어머니가 인정하고 수용하기는 하지만 아동이 표현하는 정서 수준보다 과도한 불안과 불편함을 나타내는 유형이다. 즉,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을 수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녀의 입장보다는 어머니 중심으로 불편함을 호소하는 반응이다. 이는 결국 자녀가 자신의 감정을 온전히 수용 받는다고 느끼기에는 어려움이 따라 정서사회화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오지현, 2013b). 이와 유사한 과보호적 양육태도 또한 자녀의 부적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신민진, 하은혜, 2010; 오지현, 조유진, 2009). 반면, 과민반응은 자녀의 자기효능감, 부정적 감정의 인내, 통제력, 자발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긍정적 지지관계와 상관을 보이는 등 일관적이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다(오지현, 2013b, 오지현, 2014). 과보호 역시 국내 연구결과에서 비일관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 과보호가 자녀의 부적응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신민진, 하은혜, 2010; 오지현, 조유진, 2009)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어머니의 과잉 애정에 대해 자신과 동일체감을 갖는다고 지각할수록 감정표현을 잘하고 타인의 감정에 관심이 많으며(김성희, 정옥분, 2011; 진문주, 2010), 어머니의 과보호를 과잉애정으로 지각할 경우 청소년으로 하여금 문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장혜정, 2010). 즉,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은 어머니의 과보호가 자녀에게 부정적으로만 지각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감정축소 반응은 자녀가 부정적 감정을 드러냈을 때 자녀가 표현하는 감정 그대로를 수용하지 못하며 아동중심 보다는 상황중심, 어머니 중심으로 대처하는

유형이다. 자녀의 부정적 감정표현을 제한하기 위해 언어적으로 비난하거나 신체적으로 처벌을 하는 태도는 자녀의 공감과 사회적 유능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Eisenberg et al., 1991), 불안이 높아지고, 정서 및 행동의 효과적 조절이 어려워진다 (Denham, 1997).

상기한 바와 같이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유형은 자녀의 정서 및 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선행연구에서는 어머니 반응 유형과 자녀의 정서사회성의 직·간접적 영향력을 알아보거나, 독립적 차원에서 지지적-비지지적 혹은 감정코칭, 과민, 축소반응의 높고 낮음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있어 어머니 반응의 특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유사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독립적으로 구분되어 있는지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을 온전히 수용 및 공감해주며 한계를 지어주는 어머니가 있는 반면 감정코칭반응을 해주지만 자녀의 감정표현에 대한 과민반응 또한 빈번하게 보이는 어머니도 있을 가능성이 보인다. 특히, 과민반응은 아동의 정서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이 비일관적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의 원인 중 하나를 어머니 반응의 다른 반응유형과 어떻게 조합되는지에 따라 과민반응의 영향력이 일관되지 않았던 원인으로 추론해 볼 수 있겠다.

이와 관련하여 어머니의 양육태도 하위유형을 군집으로 살펴본 연구와 유사한 관점으로 고려해볼 수 있겠다. 유아, 아동 및 청소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태도 군집 유형을 살펴본 선행연구들(김미진, 2016; 오지현, 홍정희, 2014; 조유진, 2012)에서는 긍정적 양육행동의 특징이 모두 높고 부정적 양육행동이 모두 낮은 집단, 부정적 양육태도 중에서도 무관심과 비난이 높은 집단, 긍정적 양육태도와 부정적 양육태도가 혼재하여 비일관성 측면이 두드러진 집단으로 군집이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살펴봤을 때 어머니의 반응 역시 어떻게 조합되느냐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집단 특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과민반응에 대해 살펴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반응의 변인들을 다양한 측면으로 살펴봄으로써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유형을 새롭게 이해해보고자 한다. 즉, 어머니 반응 유형의 세 가지 하위변인(코칭, 과민, 축소 반응)의 조합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군집을 탐색하여 패턴 중심으로 구분되는 어머니 반응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은 아동의 정서발달 및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본 연구에서 살펴

본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유형의 구체적 특징들이 아동의 정서발달 및 사회적 유능성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함께 고려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후기아동기는 자신이 표현하는 정서가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며, 다른 사람의 평가에 대한 민감성과 정서표현의 강도가 증가(박지선, 2014; Larson & Richards, 1991)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유능한 아동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을 침착하게 조절하거나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여 감정이입할 수 있는 능력인 정서조절능력의 중요성이 강조된다(Shields & Cicchetti, 1998). 정서조절능력이 높은 아동은 자신의 정서를 잘 이해하고, 자신감 있고 쾌활하며 정서적인 안정성을 유지하게 되어 공격적인 행동 유발 상황에서도 혼란을 느끼는 일이 드물다. 그에 따라 이러한 아동들은 또래 사이에서 인기가 많고,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하게 되며 또래관계에서의 상호작용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수준이 높아지는 등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게 된다(김옥희, 2003; Edelstein, & Keller, 1997; Hart, Hoffman, Sarni, 1990). 반면 정서조절능력이 낮은 아동은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또래관계에 있어서도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으며 공격적이어서 사회적 적응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다(Eisenberg & Fabes, 1992; Hubbard & Coie, 1994; Mc Dowell, Ki, O'neil & Parke, 2002; Sarni, 1990). 즉, 정서조절능력은 아동의 사회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안정적 대인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후기아동기의 정서조절능력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정서조절능력은 생의 초기 어머니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부터 발달되기 시작한다(Malatesta & Haviland, 1982)는 점에 근거하여 선행연구에서는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변인으로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강조하며 이들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어머니가 자녀의 감정을 수용하고 적절히 지도해줄수록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능력, 정서조절 및 활용능력, 공감능력이 발달하여 또래관계와 사회적 능력 및 친사회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김지연, 남은영, 2011; 오지현, 2013a; 오지현, 2014; Eisenberg & Fabes, 1992; Eisenberg et al., 1996; Roberts & Strayer, 1996). 그러나 어머니가 자녀의 감정은 무시한 채, 상황중심으로 판단하고 어머니 입장에서 반응할수록 자녀의 전반적인 정서지능과 정서조절 및 활용 능력, 정서표현, 감정이입능력이 낮아졌다(오지현, 2013a; 오지현, 2014). 즉, 자녀의 부정적인 정서에 대해 어머니가 아동이 표현하는 정서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며 수용적으로 받아주고 적절하게 다루어 주는 것은 아동이 자신의 정서를 이해하고 표현하며, 자신의 행동과 정서를 조절할 수 있어 정서조절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하위유형에 따른 ‘균’ 유형에 따라 어떤 특성이 있는지 탐색해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하위유형에 따른 ‘균’과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는 것에 의의가 있다.

## B.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균’은 어떻게 분류 되는가?

연구문제 2.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균’에 따라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은 차이를 보이는가?



## II. 이론적 배경

### A.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 1.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가정은 정서의 사회화가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곳으로 부모의 정서관련 양육행동은 아동의 정서 경험, 정서의 이해 및 조절, 정서표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준다. 이는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 결국 자신의 개인적 특성에 다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과정동안 아동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경험하며 조절하는 것을 학습하는 정서사회화가 이루어진다(Eisenberg et al., 1998). 정서사회화 과정 모델을 제안한 Eisenberg 등(1998)은 부모의 정서관련 양육행동을 정서표현성, 정서에 대한 대화,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반응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특히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반응은 자녀의 정서 표현과 조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박서정, 2004).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반응은 아버지와 어머니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이는 후기 아동기로 갈수록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박광향, 2009).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녀에게 질적으로 다른 반응을 하며(Geiger, 1996; Pruett, 2000) 정서적 문제에 대해 자녀는 아버지보다 어머니에게 위로와 격려를 구하고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한다. 이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자녀에게 보다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관점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Saarni, Munne & Campos(1998)는 자녀가 표현하는 정서를 행복, 즐거움과 같은 긍정적 정서와 분노, 슬픔, 두려움, 불안 등과 같은 부정적 정서로 분류하였다. 그 중 부모는 자녀가 긍정적 정서를 표현할 때 보다 부정적 정서를 표현할 경우에 민감하게 반응하며(Sigel & Hartzell, 2004), 다양한 정서적 반응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부모의 반응패턴에 따라 자녀의 정서·사회성 발달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Fabes, Lonard, Kupanoff & Martin, 2001; Fabes, Poulin, Eisenberg & Madden-Derdich, 2002; Gottman, Katz & Hooven, 1996; Gottman, Katz & Hooven, 1997; Yap, Allen, Ieve, & Katz, 2008), 연구자들은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 반응에 대해 주목하였다. 특히, 분노나 슬픔, 두려움과 같은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은 긍정적 정서보

다 더욱 중요한 조절의 대상으로 정서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므로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반응이 강조된다(Dunn et al., 1991; Eisenberg et al., 1996). 예를 들면, 어머니가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하여 지지적 반응을 보이는 경우 자녀는 자신과 타인의 정서 상태를 인식하는 능력이 발달하여 공감능력이 높았으며, 보다 나은 대처와 높은 수준의 사회적 기능을 보였다(Denham et al., 1997; Eisenberg et al., 1996, Gottman et al., 1996). 반면, 자녀가 부정적 정서를 표현했을 때 비지지적 반응을 보이는 어머니 아래에서 자라온 자녀들은 자신의 정서를 숨기고 억제하도록 학습되며 아동은 정서 경험과 처벌을 강하게 연합하여 정서 유발 상황에서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Gottman et al., 1997).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통해 어머니가 자녀의 부정적 정서를 표현할 때 보이는 반응은 자녀의 정서적 유능성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이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이해하며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적응적인 정서사회성 발달을 돕기 위해서는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어머니 반응유형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탐색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2.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유형

지금까지의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반응과 관련한 연구들(노지영, 정윤경, 2010; Eisenberg & Fabes, 1994; Eisenberg et al., 1998)은 어머니의 반응을 크게 지지적 혹은 비지지적으로 구분해서 살펴보았다. 지지적 반응으로는 자녀의 정서표현을 수용 및 격려하는 표현격려반응, 자녀의 부정적 기분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서 초점적 반응, 자녀의 부정적 정서를 일으켰던 스트레스 사건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문제 초점적 반응들이 포함된다. 비지지적 반응에는 자녀의 정서반응에 대해 어머니가 평가 절하하는 최소화 반응, 자녀가 표현하는 부정적 정서를 언어적 비난 혹은 신체적으로 처벌하는 처벌 반응, 자녀의 부정적 정서를 마치 어머니 자신이 경험한 듯 과민하게 반응하는 심리적 고통의 세 가지 반응이 포함된다.

아동의 부정적 감정 표현에 대해 어머니가 보이는 반응에 따라 자녀의 정서능력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지지적인 반응을 보일 경우 자녀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정서를 이해하는 능력이 발달하여 공감능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보다 나은 대처와 높은 수준의 사회적 유능감을 보였다(Denham et al., 1997; Eisenberg et al., 1996; Gottman et al.,

1996). 또한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격려반응은 아동의 공감 및 스트레스 대처능력 그리고 유능한 사회적 행동 유형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Denham, 1993; Eisenberg et al., 1999; Fabes et al., 2001; Fabes et al., 2002; Gottman et al., 1996; Tao et al., 2010). 반면 자녀가 부정적 정서를 표현했을 때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 중 처벌적인 반응은 자녀의 외현화 문제행동과 관련이 있으며, 최소화 반응은 회피대처(Eisenberg et al., 1996)와 심리적 고통반응은 우울이나 불안과 높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Krause, Mendelson & Lynch, 2003). 또한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을 지속적으로 경험한 자녀는 자신과 타인의 정서표현을 부정적이거나 위협적으로 지각하여, 결과적으로 정서표출의 의미를 탐색하거나 이를 다루는 방식을 획득할 기회를 잃게 된다(Eisenberg et al., 1998).

상기한 연구들은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을 크게 지지적이고 비지지적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는 의미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자녀가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했을 경우 어머니 반응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특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어머니의 정서적 반응 유형에 대한 깊이 있는 탐색을 위해서는 아동의 부정적 감정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를 여러 하위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오지현(2013b)은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을 어머니가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대처 하는지에 대해 감정코칭, 과민, 감정축소 반응으로 어머니 반응을 구분하였다. 아동의 부정적 감정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를 여러 하위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은 보다 구체적인 어머니의 정서적 반응 유형에 대한 깊이 있는 탐색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유형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 **a. 감정코칭 반응**

감정코칭 반응은 자녀가 정서를 표현할 때 이를 부모가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공감 및 표현을 격려하는 유형으로 기존 연구에서 지지적 반응으로 대표되는 수용 및 격려 반응의 개념과 차이를 보이는 점이 특징적이다. 감정코칭반응은 격려반응과 감정전환 반응이 포함되어 자녀가 부정적 정서경험을 표현했을 때 어머니는 자녀의 감정을 이해한 후 적절한 정서로 반응하여 공감(Allison, Baron-Cohen, Wheelwright, Stone, & Muncer, 2011)한다. 더불어 자녀가 스스로 자신의 정서를 탐색하고 명료하게 지각하여 부정적 정서를 일으켰던 문제들을 해결 할 수 있도록 이끌고, 행동에 한계를 정해주는

감정대처 반응도 포함되어 있다(오지현, 2010a; Gottman et al., 1996; Gottman & Nahm, 2007). 즉, 감성코칭반응은 자녀가 부정적 감정을 표현했을 때 어머니가 자녀의 감정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반응과 더불어 자녀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끌면서 행동에 한계를 정해주는 태도이다. 이는 어머니가 아동의 부정적 감정을 인정하고 공감해주며 문제해결을 돕는 반응을 할수록 아동의 공감 능력은 높아지며(오지현, 2015), 정서지능이 상승하고, 탄성력의 하위 요인 중 자기 효능감과 부정적 감정의 인내, 긍정적 지지 관계, 통제력, 자발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오지현 2013a; 오지현 2014)으로 나타났다.

### b. 과민 반응

과민반응은 자녀가 부정적 정서를 드러냈을 때 어머니가 자녀의 정서를 인정하고 수용하기는 하지만 자녀가 표현하는 정서 수준보다 과도한 불안과 불편함을 보이며 그 정서에 압도되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을 의미한다(오지현, 2013b). 과민한 부모는 부모-자녀관계에서 경계가 불분명하여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자녀의 관점을 수용하기 어렵다(Perez-Albeniz & De Paul, 2003). 또한 과민반응을 보이는 어머니의 자녀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억제된 정서는 더 강력하게 조절되지 못한 방법으로 표출됨으로써 사회적 유능감이 감소하며, 사고, 억제, 우울,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Krause, Mendelson & Lynch, 2003). 이는 자녀가 표현하는 부정적 정서 수준보다 어머니가 과도한 불안과 불편한 반응을 빈번하게 할수록 아동의 공감능력은 감소한다는 연구결과(오지현, 2015)와 맥을 같이한다. 즉, 과민반응은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을 수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녀의 입장보다는 어머니 중심으로 불편함을 호소하는 반응이다. 이는 결국 자녀가 자신의 감정을 온전히 수용 받는다고 느끼기에는 어려움이 따라 정서사회화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오지현, 2013b).

이와 유사한 과보호적 양육태도 또한 자녀의 부적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신민진, 하은혜, 2010; 오지현, 조유진, 2009). 과보호는 부모자녀의 관계가 분리되지 못한 채 자녀 스스로 해야 할 과제를 부모가 미리, 대신 처리해주어 자녀가 자율적으로 선택 및 결정하기보다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모습(김성희, 정옥분, 2011)으로 정의된다. 과보호는 전통사회에서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 과정을 거치며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진출에 따른 늦은 결혼 등과 같은 사회적 변화로 인해 한자녀 가정의 비율이 증가하며 등장하게 되었다(김성희, 정옥분, 2011; 박아청, 1998).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부모의 교육수준과 자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와 함께 양육태도의 변화와도

연관성이 있다. 과거 전통사회의 권위적이고 통제적인 양육태도의 문제점이 드러나게 됨에 따라 부모의 비수용적이고 억압적인 양육태도가 감소하였다(김춘경, 2000). 그러나 아동의 욕구 및 감정수용을 강조하는 심리·교육적 이론이 부모에게 잘못 받아들여져 오히려 자녀에게 과도하게 애정적, 허용적인 과보호적 양육태도로 변화하며 나타났다(이선이, 이여봉, 김현주, 2008). 이에 더해 사회의 급속적인 변화에 맞춰 전통적 가치관을 소유한 부모들이 현대의 다양한 가치관 속에서 자신만의 양육신념체계가 서지 못한 상황에서 자녀양육에 대한 태도, 높은 애정과 합리적 지도, 권위주의적 통제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게 되면서 자녀양육의 태도 중 하나로 과보호가 나타났다(박아청, 1998). 또한 최상진(1994)은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보지 못하며 부모자녀관계에서 서로의 부정적인 감정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지각하는 ‘동일체감’은 다른 나라와는 차별화되는 한국적 부모-자녀관계의 특징이라고 보고하며 과보호를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양육태도로 보았다. 즉, 사회의 급속한 변화와 함께 나타난 자녀양육태도의 변화와 그에 대한 가치관의 혼란은 결국 부모-자녀관계에서의 과도한 동일체감으로 나타나 우리사회에서 나타나는 양육태도의 특징 중 하나인 과잉보호라는 양육태도로 자연스럽게 깊숙이 뿌리내려져 보편화되어 나타나게 되었다. 과잉보호양육태도가 한국 사회에서 보편화 되며, 자녀의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양육태도로 주목 받고 있다(김성희, 정옥분, 2011; 오지현, 조유진, 2009). 특히 부모가 자녀의 연령에 적합하지 않게 어린아이 다루듯 한다거나 과잉기대, 과잉 간섭하는 행동이 잦을수록 아동의 불안, 우울 및 부적응(신민진, 하은혜, 2010)문제가 나타나며, 아동의 정서·행동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오지현, 조유진, 2009). 즉, 과보호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정서 사회화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과민반응은 자녀의 자기효능감, 부정적 감정의 인내, 통제력, 자발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긍정적 지지관계와 상관을 보이며, 비일관적인 결과가 나타났다(오지현, 2013b; 오지현, 2014). 과보호 역시 국내 연구결과에서 비일관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비교문화 연구에서 미국아동은 부모의 과보호를 부모의 적대감이나 거부와 관련하여 지각하는 반면, 한국 아동은 부모의 관심 및 애정으로 받아들인다고 보고하였다(Kim & Choi, 1994; Rohner & Pettemgil, 1985). 이는 자녀가 어머니의 과잉 애정에 대해 자신과 과도한 일체감을 갖는다고 지각할수록 감정표현을 잘하고 타인의 감정에 관심이 많으며(김성희, 정옥분, 2011; 진문주, 2010), 어머니의 과보호를 과잉애정으로 지각할 경우 청소년으로 하여금 문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합리적으로 해결(장혜정, 2010)한다는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과잉보호하는 부모는 불분명

한 부모자녀경계로 인해 공격적 반응을 보이거나 자녀의 관점수용이 어렵고 (Perez-Albeniz & De Paul, 2003), 자녀의 부적응적 정서조절을 자극하여 사회적 유능감이 감소(Krause, Mendelson & Lynch, 2003)한다고 밝혀지며 과보호가 자녀에게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비일관적 연구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Rohner와 Pettengil(1985)이 한국의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정서적으로 치유자적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통제적 양육태도를 보이면 자녀는 어머니의 통제를 적대적으로 지각하기 쉽다고 보고한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또한 과보호의 하위요인 중 과잉기대, 자율성 저해, 과잉통제, 과잉보호 및 불안의 경우 청소년에게 어머니의 권위로 지각되어 부정적으로 인지되는 반면, 과잉애정은 어머니의 애정적인 양육역할로 지각되어 청소년의 불안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이 미미함(신민진, 하은혜, 2010)을 밝힌 연구와 일맥상통한다. 즉, 과잉개입과 과보호가 보편화되어 있는 한국사회에서 아동은 부모의 과보호를 부정적으로만 지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이는 어머니의 과보호에 대해 아동이 어머니의 관심 및 돌봄으로 받아들이거나(Kim & Choi, 1994; Rohner & Pettengil, 1985), 과민함과 과보호로 지각(신민진, 하은혜, 2010)하는 경우가 함께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과민 반응 역시 자녀의 부정적 감정 표현에 대해 어머니가 과보호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과보호가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우리나라에서는 자녀가 어머니의 과민반응을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지각하기보다 어머니의 애정과 돌봄으로 지각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 c. 감정축소 반응

감정축소 반응은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자녀가 표현하는 감정 그대로를 수용하지 못하며 아동중심 보다는 상황중심, 어머니 중심으로 대처하는 유형이다. 자녀의 부정적 감정표현을 제한하기 위해 언어적으로 비난하거나 신체적으로 처벌을 하는 태도는 자녀의 공감과 사회적 유능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Eisenberg et al., 1991), 불안이 높아지고, 정서 및 행동의 효과적 조절이 어려워진다(Denham, 1997). 뿐만 아니라 아동은 자신의 감정이 억제된 채 있다가 다른 상황에서 더 강력하게 촉발되어 외현화 문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Nahm, 2006; Tao et al., 2010). 또한 자녀가 진지하게 표현하는 정서반응에 대해 어머니가 평가절하 하거나 자녀의 문제 및 고통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반응을 주로 보이는 어머니의 자녀는 정서조절 방식 중 회피대처를 많이 보이고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행동과 낮은 인기 등과 관련이 있었다(Eisenberg et al., 1998). 자녀의 부정적인 정서표현에 대해 어머니가 자녀의 감정을

수용하지 못하고 상황 혹은 어머니 중심으로 대처할수록 아동의 정서인식, 정서표현능력이 낮아졌다(오지현 2013a; 오지현 2014).

상기한 바와 같이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유형은 자녀의 정서 및 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선행연구에서는 어머니 반응 유형과 자녀의 정서사회성의 직·간접적 영향력을 알아보거나, 독립적 차원에서 지지적-비지지적 혹은 감정코칭, 과민, 축소반응의 높고 낮음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있어 어머니 반응의 특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유사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독립적으로 구분되어 있는지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을 온전히 수용 및 공감해주며 한계를 지어주는 어머니가 있는 반면 감정코칭반응을 해주지만 자녀의 감정표현에 대한 과민반응 또한 빈번하게 보이는 어머니도 있을 가능성이 보인다. 특히, 과민반응은 아동의 정서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이 비일관적인 양상을 나타내고 있어 이에 대한 원인 중 하나로 과민반응과 어머니 반응의 다른 반응유형이 어떻게 조합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과민반응의 영향력이 일관되지 않았던 원인을 추론해볼 수 있겠다.

이와 관련하여 어머니의 양육태도 하위유형을 군집으로 살펴본 연구와 유사한 관점으로 고려해볼 수 있겠다. 어머니의 정서적 반응과 관련하여 이와 유사한 어머니의 양육태도 하위유형을 군집으로 살펴본 연구들이 있다. 유아, 아동 및 청소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태도 군집유형을 살펴본 선행연구들(김미진, 2016; 오지현, 홍정희, 2014; 조유진, 2012)에서는 긍정적 양육행동의 특징이 모두 높고 부정적 양육행동이 모두 낮은 집단, 부정적 양육태도 중에서도 무관심과 비난이 높은 집단, 긍정적 양육태도와 부정적 양육태도가 혼재하여 비일관성 측면이 두드러진 집단으로 군집이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들을 살펴봤을 때 양육태도의 하위요인들을 따로따로 살펴보았을 때보다 변인들의 조합으로 패턴화 시켰을 때 더 다양하고 패턴적인 집단의 특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또한 패턴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즉,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을 다차원적으로 고려해봄으로써 어머니 반응 군 유형에 따라 어떤 특성이 있는지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하고자 하였다.

## B.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정서조절은 자신의 마음을 침착하게 조절하거나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여 감정이입할 수 있는 정서조절능력을 의미한다(Shields & Cicchetti, 1998). Shields와 Cicchetti(1995)는 정서조절을 두 가지 중요한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정서를 적응적인 방향과 부적응적인 방향으로 조절하는 것이다. 적응적인 정서조절은 정서인식능력이 뛰어나고, 상황에 맞게 정서를 표현하며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여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정서조절을 의미한다. 부적응적 정서조절은 유연성이 부족하며, 감정의 변화가 심하고 부정적인 정서를 조절하지 못하는 정서조절기술의 결여를 의미한다.

이러한 정서조절능력은 아동의 사회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안정적 대인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서조절능력이 높은 아동은 자신의 정서를 잘 이해하고, 자신감 있고 쾌활하며 정서적인 안정성을 유지하게 되어 공격적인 행동 유발 상황에서도 혼란을 느끼는 일이 드물다. 그에 따라 이러한 아동들은 또래 사이에서 인기가 많고,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하게 되며 또래관계에서의 상호작용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수준이 높아지는 등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게 된다(김옥희, 2003; Edelstein, & Keller, 1997; Hart, Hoffman, Sarni, 1990).

반면 정서조절능력이 낮은 아동은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또래관계에 있어서도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으며 공격적이어서 사회적 적응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다(Eisenberg & Fabes, 1992; Hubbard & Coie, 1994; Mc Dowell, Ki, O'neil & Parke, 2002; Sarni, 1990). 특히 후기아동기는 자신이 표현하는 정서가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며, 다른 사람의 평가에 대한 민감성과 정서표현의 강도가 증가(박지선, 2014; Larson & Richards, 1991)하는 시기로 아동이 또래관계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정서조절능력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 C.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과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정서조절능력은 생의 초기 어머니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부터 발달되기 시작한다(Malatesta & Haviland, 1982). 이에 근거하여 지금까지 정서조절능력과 관련한 연구들



은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어머니와의 정서적 경험이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어머니가 아동에게 온정적으로 대하고, 자녀의 독립심을 격려하며 지지하는 방식으로 양육하는 경우 아동은 자신의 충동과 욕구를 통제하고 환경의 요구에 맞게 자신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Silverman & Ragusa, 1991).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어머니일수록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이 높으며(김숙형, 2004; 오남희, 2008), 어머니가 애정적이고 합리적인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자녀는 자신의 정서를 적응적으로 조절한다(박서정, 2004). 하지만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거부적이고 엄격할수록 어머니가 자녀의 정서표현을 많이 통제하므로 아동은 자신의 감정을 다루는 데 불안을 느끼며 슬픈 정서반응을 나타낸다(Eisenberg et al., 1992). 박서정(2004)은 어머니가 거부적이고 강압적인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아동은 부적응적으로 정서를 조절한다고 밝혔으며, 김희영(2010)은 어머니가 심리적인 통제를 할수록 아동은 감정발산 및 회피와 같은 부적응적 정서조절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밝혔다. 즉,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행동 및 긍정적 정서표현은 아동의 적응적 정서조절능력과 관련이 높은 반면, 어머니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은 자녀의 부적응적 정서조절능력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변인으로 양육행동이라는 의미가 포괄적이고 어머니의 정서적 반응을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선행연구에서는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 발달에 부모의 정서 사회화 요인이 관련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정서조절능력을 발달시키는 요인으로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과의 관련성에 주목하였다(서혜린, 이영, 2008; 이강이 등, 2007; Eisenberg & Fabes, 1994; Goleman, 1995; Morris, Silk, Steinberg, Myers & Robinson, 2007; Yap et al., 2008).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머니가 자녀의 감정을 수용적이고 적절히 지도해줄수록 아동은 회복력이 높아져 정서적 안정을 쉽게 찾으며(Gottman, & Nahm, 2007)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능력, 정서조절 및 활용능력, 공감 능력이 발달하여 또래관계와 사회적 능력 및 친사회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김지연, 남은영, 2011; 오지현, 2013a; 오지현, 2014; Eisenberg & Fabes, 1992; Eisenberg et al., 1996; Roberts & Strayer, 1996). 이는 어머니가 자녀의 슬픔, 분노, 불안과 같은 정서표현을 수용해주고 격려해줄수록 자녀의 적응적 정서조절을 돕는다(서혜린, 이영, 2008; Eisenberg & Fabes et al., 1994; Goleman, 1995)는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그러나 어머니가 자녀의 감정은 무시한 채, 상황중심으로 판단하고 어머니 입장에서

반응할수록 자녀의 전반적인 정서지능과 정서조절 및 활용 능력, 정서표현, 감정이입능력이 낮아졌다(오지현, 2013a; 오지현, 2014). 이는 엄격하고 통제적인 반응의 태도는 자녀의 공격적이고 부적응적 정서조절을 자극한다(서혜린, 이영, 2008; Eisenberg & Fabes et al., 1994; Goleman, 1995)는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즉, 자녀의 부정적인 정서에 대해 어머니가 아동이 표현하는 정서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며 수용적으로 받아주고 적절하게 다루어 주는 것은 아동이 자신의 정서를 이해하고 표현하며, 자신의 행동과 정서를 조절할 수 있어 정서조절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상기한 연구들은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이 자녀의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으며, 이는 본 연구에서 구분해 보고자 하는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유형군집에 따라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군집에 따라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있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 Ⅲ. 연구방법

#### A.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초등학교 5, 6학년으로 선정하였다. 이 연령층은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정서를 발달시켜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시기(윤인애, 김광수, 하요상, 2012)에 속하며, 청소년기보다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점(최미경, 도현심, 차성혜, 2010; 권오정, 2008)을 고려하여 광주광역시의 초등학교 5, 6학년의 남, 여학생 322명을 자료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1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N = 322)

	구분	n (%)
성별	남	126(39.1)
	여	135(41.9)
학년	초등학교 5학년	171(53.1)
	초등학교 6학년	151(46.9)
어머니연령	30대	80(24.8)
	40대	184(57.1)
	50대	1(.3)
어머니 교육 수준	고졸	70(21.7)
	대졸	171(53.1)
	대학원졸 이상	10(3.1)
	기타	8(2.5)

#### B. 측정도구

##### 1.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척도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을 측정하기 위하여 오지현(2013a)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할 것이다. 본 척도는 총 21 문항이며 감정

코칭 반응(10문항), 과민 반응(5문항), 감정 축소 반응(6문항)으로 구성되어있고 하위요인 별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유형의 특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감정코칭 반응은 자녀의 부정적 정서 표현에 대해 감정을 인정하며 수용하는 반응과 더불어 아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끌면서 행동에 한계를 정해 주는 특징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내가 왜 이런 기분이 들었는지에 대해 물어 보신다’의 문항이 있다. 과민 반응은 자녀가 표현하는 정서 수준보다 어머니가 과도한 불안과 불편함을 보이는 태도이다. 문항의 예는 ‘나보다는 오히려 어머니가 더 힘들어 하신다’, ‘내가 말하기 부담스러울 정도로 내 걱정을 나보다 더 하신다’가 있다. 마지막으로 감정축소 반응은 아동이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하였을 때 아동의 감정을 무시하고, 상황중심으로 판단하여 주로 어머니 입장에서 반응하는 유형이다. 예를 들어, ‘나의 기분이 어떤지는 생각도 않으시고 내 실수나 잘못에 대해 지적하신다’와 같은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의 하위요인의 문항수와 신뢰도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 2.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척도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Shilelds와 Cicchetti(1995)가 개발한 ERC(The Emotional Regulation Check list)를 손경숙(2007)이 초등학생용으로 재구성하고 이를 원숙연(2015)이 아동평정용으로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ERC는 적응적으로 정서조절을 하는 아동과 부적응적으로 정서조절을 하는 아동을 변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하위요인은 적응적 정서조절(8문항)과 부적응적 정서조절(12문항)의 두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적응적 정서조절은 상황에 맞게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하며 조절하는 것을 의미하며,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이나 정서지각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예로는 ‘나는 친구가 말을 걸면 친절하게 대하거나 친구의 말을 인정한다.’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아동의 부적응적 정서조절은 문제 상황에서 기분이 불안정하여 자신의 정서를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조절하지 못하는 내용을 나타낸다. 예로는 ‘나는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적응적 정서조절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높음을 의미하며, 부적응적 정서조절의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조절을 적절하게 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정서조절능력의 총점이 높을수록 자신의 정서를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표현하며 적응하는 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의 Likert식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각 하위요

인의 문항수와 신뢰도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 분석결과 적응적 정서조절이 .48로 낮게 나타났으나 척도의 타당도를 고려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표 2. 각 척도 별 하위영역과 문항수, 신뢰도

변인 구분	하위영역	문항 번호	문항수	신뢰도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감정코칭	1, 4, 7, 8, 11, 12, 15, 16, 19, 20	10	.91
	과민반응	2, 5, 9, 13, 17	5	.70
	감정축소	3, 10, 6, 14, 18, 21	6	.80
정서조절능력	적응적 정서조절	1, 3, 4, 5, 7, 10, 14, 17	8	.48
	부적응적 정서조절	2, 6, 8, 9, 11, 12, 13, 15, 16, 18, 19, 20	12	.75

### C. 연구절차

본 조사의 설문지 배부는 광주광역시 소재 초등학교 교장(기관장)과의 개별연락을 통해 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함께 설문조사가 이뤄지는 방법을 안내하고 동의를 구한 뒤, 설문조사에 대한 허락이 된 기관에 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대한 보호자 동의를 받았으며 동의를 한 아동에 대해서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과 정서조절능력을 측정하는 2개의 검사에 대하여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자가 직접 교사에게 검사의 구성과 실시절차에 대하여 설명하며 교사가 사전에 안내문을 숙지하도록 하여 설문 실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다. 배포된 질문지는 직접 방문으로 회수하였다.

### D.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3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통계분석 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배경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와 백분율을 산출하고,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알아보기 위해 군집분석(cluster analysis)과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군집분석은 공통적인 특성들을 기초로 사람들이 어떻게 자연발생적이고 동질적인 하위집단으로 묶이는지를 보여준다.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감정코칭반응, 과민반응, 감정축소반응)에 근거하여 하위집단들을 조합하여 살펴보기 위해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유형을 변인 중심이 아닌 패턴중심으로 분류하고, 독특한 유형을 이루는 각 집단의 특성을 검토함으로써 어머니 반응이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의 관련성을 보다 정교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Hair 와 Black(2000)이 제안한 2단계 군집분석 방법인 Wards 방법과 비위계적 군집분석인 K-means 방법을 연이어 실시하는 방식으로 위계적 군집방법만을 사용할 때 이탈정도가 큰 사례들이 군집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다.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A.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유형 군집분석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의 하위유형에 근거하여 하위집단들을 조합하는 군집 분석을 실시하였다. 반응의 하위 유형인 감정코칭, 과민반응, 감정축소의 표준점수를 투입하여 위계적 군집분석(wards method, squared euclidean distances)을 실시하였다. 이후 군집-내 변량을 최소화하면서 군집-간 구분을 최대화 시키는 해법인 군집화 일정표(agglomeration schedule)계수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4개 군집이 가장 적절하였다. 4개, 6개 군집 모두 의미 있는 형태를 보였지만, 해석 가능성 측면에서도 4개 군집 해법이 가장 적절하였다. 1단계에서 생성된 군집변인들의 각 군집별 평균점수를 초기 중심점으로 투입하여 2단계 K-means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사례들의 소속군집을 정하였다.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군집 1은 100명, 군집 2는 58명, 군집 3은 108명, 군집 4는 52명으로 구성되었다. 군집 특성을 파악하여 군집 명을 정하기 위하여 군집 변수로 어머니 반응의 각 하위변인들의 표준점수에 근거한 각 군집의 패턴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군집 1은 과민반응, 감정축소반응은 평균보다 낮은 반면 감정코칭반응이 평균보다 높다. 이는 아동의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했을 때 어머니가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을 수용해주고 공감해주지만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닌 적절한 한계설정으로 감정을 조절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자녀가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했을 때 자녀의 정서를 공감해주고 적절한 제한설정과 코칭으로 아동이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조절하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아동중심의 반응의 특성이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어 ‘아동중심-감정코칭형’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2는 감정축소를 제외한 감정코칭, 과민반응이 평균보다 높으며 특히 높은 감정코칭이 나타나고 있으나 과민반응이 혼재되어 있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아동이 부정적인 정서표현을 했을 때 어머니가 수용 및 공감하고, 코칭하지만 이에 더해 자녀의 연령에 맞지 않게 어린아이 다루듯 한다거나 과잉기대 및 간섭하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자녀의 부정적 감정을 수용해주고 코칭해주는 감정코칭반응과 과

도한 수용 및 과잉기대, 간섭하는 과민반응이 혼재되어 나타날 것으로 여겨져 ‘과민-감정코칭 혼재형’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다음으로 군집 3은 감정코칭반응이 평균보다 낮은 반면 과민반응과 감정축소가 평균보다 높은데 특히, 감정축소가 두드러지게 높은 경향을 보이는 점이 특징적이다. 자녀가 부정적 감정을 표현 할 경우 이를 수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동의 입장보다는 어머니의 입장에서 불편함을 호소하여 결국 자녀는 자신의 감정을 온전히 수용 받는다고 지각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상황에 따라 어머니가 자녀의 감정을 수용하지 못하고 아동의 감정표현을 제한하기 위해 언어적 또는 신체적 폭력을 가하기도 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며 이러한 반응들이 상황 혹은 어머니 입장에 따라 비일관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어머니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수용적 태도를 보이기도 하지만 감정표현을 제한하거나 통제 및 처벌하는 태도가 상황 혹은 어머니의 기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결과적으로 자녀가 이러한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혼란스럽게 여길 것으로 해석되어 ‘혼란형’집단으로 명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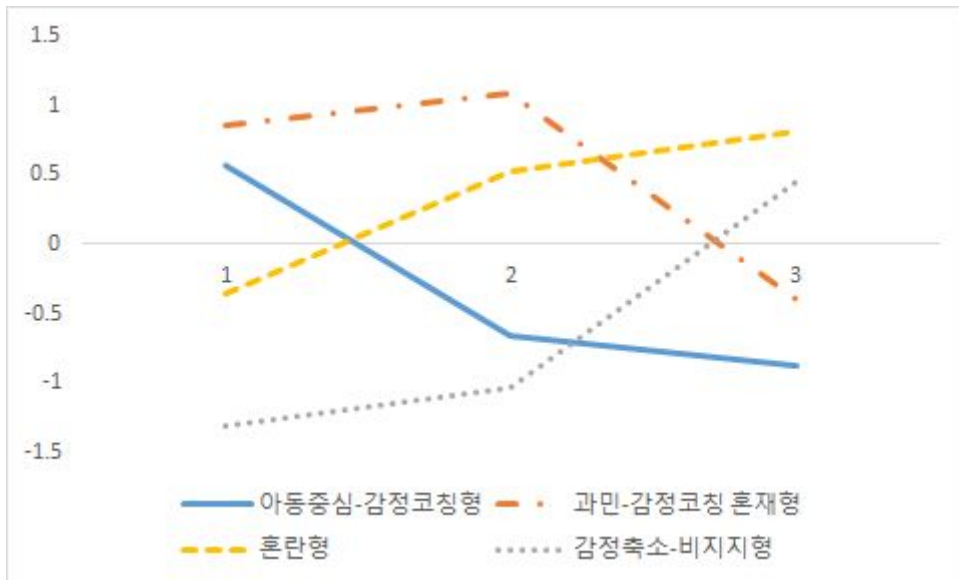
군집4는 감정축소반응이 평균보다 높고, 감정코칭반응과 과민반응은 평균보다 낮다. 특히, 감정코칭과 과민반응은 두드러지게 낮고 감정축소는 높은 경향을 보이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는 자녀가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 어머니가 자녀의 감정표현을 무시하고, 상황중심으로 판단하며 어머니 입장에서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어머니는 자녀가 표현하는 감정을 온전히 수용하지 못하며 아동중심 보다는 어머니 또는 상황 중심으로 대처하는 반응을 보여 ‘감정축소-비지지형’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표 3. 최종 군집별 중심점

변인	군집 1(N = 100) ‘아동중심- 감정코칭형’집단	군집 2(N = 58) ‘과민-감정코칭 혼재형’ 집단	군집 3(N = 108) ‘혼란형’ 집단	군집 4(N = 52) ‘감정축소- 비지지형’집단
감정코칭	.57	.86	-.36	-1.31
과민반응	-.66	1.09	.53	-1.04
감정축소	-.87	-.40	.81	.45

주. 군집변인은 표준화된 점수임( $M = 0, SD = 1$ ).





주, 1=감정코칭, 2=과민반응, 3=감정축소

그림 1. 군집 프로파일

## B.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군’과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다음으로는 군집분석을 통해 나누어진 각 집단들이 정서조절능력과 유의미한 집단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과 사후검증으로 Scheffé 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5에 제시한 바와 같이 각 군집에 따라 적응적 정서조절( $F = 6.89, p < .001$ ), 부적응적 정서조절( $F = 14.37, p < .001$ )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평균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반응 특성에 따른 군집들이 적응적, 부적응적 정서조절능력에 있어 각각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Scheffé의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적응적 정서조절능력은 군집2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군집1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군집3과 군집4가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부적응적 정서조절에서는 군집3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군집4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군집1과 군집2가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표 4. 군집별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대한 일원변량분석

종속 변인	독립 변인	<i>M(SD)</i>	<i>F</i>	Scheffé
적응적 정서조절	군집1 ( <i>n</i> = 100)	29.29(3.84)	6.89***	2>1>3=4
	군집2 ( <i>n</i> = 58)	29.59(3.78)		
	군집3 ( <i>n</i> = 108)	27.63(4.38)		
	군집4 ( <i>n</i> = 52)	27.02(3.47)		
부적응적 정서조절	군집1 ( <i>n</i> = 100)	25.28(6.80)	14.37***	3>4>1=2
	군집2 ( <i>n</i> = 58)	27.54(6.22)		
	군집3 ( <i>n</i> = 108)	31.24(6.65)		
	군집4 ( <i>n</i> = 52)	28.64(6.66)		

주. 1=아동중심-감정코칭형, 2=과민-감정코칭 혼재형, 3=혼란형, 4=감정축소-비지지형

\*  $p < .05$ , \*\*  $p < .01$ , \*\*\*  $p < .001$

## V. 논의 및 결론

### A.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군’유형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반응의 하위유형인 감정코칭반응, 과민반응, 감정축소반응에 따라서 어떤 자연발생적인 군집이 존재하는지를 알아보았다.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하위요인들 점수의 조합에 따라 집단을 분류했을 때 4개의 독특한 집단유형을 발견하였다. 군집 1은 ‘아동중심-감정코칭형’ 집단, 군집 2는 ‘과민-감정코칭 혼재형’ 집단, 군집 3은 ‘혼란형’ 집단, 군집 4는 ‘감정축소-비지지형’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군집 1인 ‘아동중심-감정코칭형’ 집단은 부정적 반응특징인 과민반응, 감정축소반응이 모두 낮은 반면 긍정적 반응특징인 감정코칭반응이 높은 집단으로 일관적으로 자녀의 감정을 공감해주고 코칭해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자녀의 부정적 감정을 표현을 정서학습의 기회로 중요하게 여겨 아동의 정서경험을 인정해주고 공감해주며 부정적 감정을 일으킨 사건에 대해 정서를 조절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어 아동이 정서를 잘 조절할 수 있도록 지지해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어머니가 자녀의 감정을 코칭해주는 반응이 주가 되고, 다른 비지지적 반응 중 과민, 축소반응은 평균이하를 보이고 있어 순수한 감정코칭집단의 유형이라는 점을 의미 있게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선행연구(김미진, 2016; 오지현, 홍정희, 2014; 조유진, 2012)에서 양육태도 중 긍정적 측면은 모두 두드러지게 높은 반면 부정적 측면은 모두 낮게 나왔듯이 단순히 감정코칭유형이 높은 집단이 아닌 비지지적 측면이 낮으면서 감정코칭만이 순수하게 높은 집단으로 볼 수 있다. 즉, 감정코칭과 함께 비지지적 반응을 보이는 어머니와 다른 부정적 반응을 덜 하면서 감정코칭만을 주로 보이는 어머니들의 집단을 이해해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군집 2인 ‘과민-감정코칭 혼재형’ 집단은 감정축소가 낮고, 특히 감정 코칭이 네 집단 중 가장 높으면서도 과민반응이 혼재되어 있는 집단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해 수용해주고 공감하며 애정을 표현하지만 아동이 표현하는 정서수준보다 어머니가 과도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껴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지나치게 관심을 가짐으로써 부모-자녀간의 과도한 일체감과 공생관계를 특징하는 ‘한국적 과보호’(정은영, 2008)의 특징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과보호와 관련한 선행연구(김성

회, 정옥분, 2011; 오지현, 조유진, 2009; 장혜정, 2010; Kim & Choi, 1994; Rohner & Pettemgil, 1985; Rohner & Pettemgil, 1985)에서는 어머니의 과보호가 한국의 자녀에게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비일관적 연구결과가 나타나며 계속적으로 갑론을박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기존연구에서는 과잉보호만을 주로 살펴보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과민반응과 함께 강하게 두드러지는 감정코칭반응이 조합되었을 때의 영향력을 살펴볼 수 있어 기존의 비일관적으로 나왔던 결과들을 보완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군집 3인 ‘혼란형’ 집단은 긍정적 반응유형인 감정코칭반응이 부족한 반면 부정적 반응의 특징인 과민반응과 감정축소반응이 높으며 특히, 감정축소가 네 집단 중 가장 두드러지게 높은 경향을 보이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는 자녀의 감정표현에 대해 수용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자녀의 부정적 정서를 감소하거나 회복시키기 위해 이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어머니가 과도한 불안과 불편함을 느껴 아이에게 진심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해 수용해주고 공감적 반응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동 중심적 수용이 아닌 자녀의 정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최소화반응으로 어머니 입장에서 대처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어머니의 이러한 특징으로 자녀들은 어머니에게 온전한 수용과 공감 받고 있음을 느끼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혼란형’ 집단의 발견은 아동 중심적 양육태도가 자녀에게 중요함을 지각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아동에게 진심으로 반응하기 어려워하는 어머니의 특성을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집 4인 ‘감정축소-비지지형’ 집단은 감정코칭과 과민반응이 두드러지게 낮고 감정축소는 높은 경향을 보이는 집단으로 자녀가 부정적 감정을 표현할 경우 어머니가 자녀의 정서표현을 전혀 수용하지 않고 감정을 제한하고 무시하는 반응을 주로 할 것으로 보인다. 즉, 어머니 자신이 부정적 정서를 표현했을 때 스스로가 괴롭거나 불편함을 느껴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거나 표현에 어려움을 보일 수 있어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무시 혹은 회피하는 등의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특징의 어머니들이 모인 집단으로 추론해 볼 수 있겠다. 어머니의 이러한 특징으로 자녀는 자신의 감정이 중요하지 않다고 느껴 정서표현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척도의 3개 하위변인으로 군집화한 4개의 정서적 반응 유형에 대한 대표성을 단언하기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를 통해 어머니의 정서적 반응유형을 단일적으로 살펴본 연구들과 달리 자연발생적으로 조합되는 형태를 토대로 변인들의 조합을 군집화 시켰을 때 독특한 특성을 발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즉 ‘아동중심-감정코칭형’ 집단, ‘감정축소-비지지형’ 집단, ‘과민-감정코칭 혼재형’ 집단과 ‘혼란형’ 집단의 4개 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 **B.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군’과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간 관계**

군집분석을 통해 탐색한 각 군집에 따라 아동의 적응적 정서조절능력과 부적응적 정서조절능력 간에 유의미한 집단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각 집단에 따라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아동의 적응적 정서조절능력의 특성을 살펴보면, ‘과민-감정코칭 혼재형’ 집단이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고, 다음으로 ‘아동중심-감정코칭형’ 집단이 높았으며 ‘혼란형’ 집단과 ‘감정축소-비지지형’ 집단 순서로 차이를 보였다. ‘아동중심-감정코칭형’ 집단과 ‘과민-감정코칭 혼재형’ 집단은 감정코칭이라는 공통적 특성을 보이고 있음에도 ‘과민-감정코칭 혼재형’ 집단이 적응적 정서조절능력에 보다 높은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가 자녀에게 온정적이고 수용적으로 민감하게 대처하고 적절히 통제하는 것은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발달에 긍정적 영향력을 미치지만(박서정, 2004) 그 정도가 지나치면 오히려 해가 된다는 연구결과(김성희, 정옥분, 2011)와 상반되는 결과이다. 하지만 선행연구(진문주, 2010; Kim & Choi, Rohner & Pettemgil, 1985)에서는 어머니의 과보호를 관심 및 애정으로 받아들이는 경우 적응적 정서조절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과민-감정코칭 혼재형’ 집단의 경우 두드러지게 높은 감정코칭반응과 과민반응이 혼재하여있어 이러한 점을 고려해봤을 때 감정코칭반응과 과잉보호가 결합되었을 경우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하여 어머니가 격려할수록 자녀는 정서를 조절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높다는 선행연구들(오지현, 2013a; 오지현, 2014; Morris et al., 2007; Shortt et al., 2010; Valiente et al., 2007; Yap et al., 2008)과도 일치하는 결과다.

단, ‘혼란형’ 집단과 ‘감정축소-비지지형’ 집단은 적응적 정서조절능력에서 유의미한 평균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결과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어머니의 최소화 반응

을 지속적으로 받아온 자녀들은 자신의 감정이 중요하지 않다고 느껴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 의미 없다고 생각하게 되어 자신의 정서를 숨기고 억제하도록 학습되며(Gottman et al., 1997) 정서표현에 대한 부정적 신념뿐만이 아니라 정서를 경험했을 때 이를 억제하거나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갈등하는 양상을 발달시킬 것(노지영, 정윤경, 2010)이라고 논의한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노지영, 정윤경(2010)은 어머니가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다소 회피적이며 부모의 적극적 확대 못지않게 자녀에게 자신의 심리적 고통을 드러내는 소극적 반응 또한 자녀의 정서조절능력에 부정적 영향력이 강하다고 보고했다(노지영, 정윤경, 2010). 즉,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어머니가 진심으로 자녀의 감정에 반응해주지 않는 부정적 태도에 있어서는 유사하게 자녀의 정서조절능력에 적응적이지 못하게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아동의 부적응적 정서조절능력과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반응에 있어서 ‘혼란형’ 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감정축소-비지지형’ 집단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과민-감정코칭 혼재형’ 집단과 ‘아동중심-감정코칭형’ 집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어머니가 비지지적인 반응을 보일수록 자녀의 부적응적 정서조절능력을 자극하며(서혜린, 이영, 2008; Eisenberg & Fabes et al., 1994; Goleman, 1995),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이 자녀의 정서적 어려움과 행동문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허묘연, 2004; Kawabata, Alink, Tseng, 2011)이 보고됐던 바,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이 아동의 부적응적 정서조절능력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은 본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혼란형’ 집단에서 아동의 부적응적 정서조절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비밀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과 같은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할수록 정서행동문제가 증가한다는 선행연구(허묘연, 2013)와도 일치하는 결과다.

한편, ‘혼란형’ 집단과 ‘감정축소-비지지형’ 집단은 부정적인 양육행동이라는 공통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지만 아동의 부적응적 정서조절능력에 따라 집단 간 평균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혼란형’ 집단과 ‘감정축소-비지지형’ 집단이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과민반응 요인으로 ‘혼란형’ 집단의 경우,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감정을 수용하거나 강압적인 태도가 상황 혹은 어머니의 기분에 따라 비밀관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는 애착유형 중 불안-저항애착과 유사한 관점으로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불안-저항애착을 보이는 자녀에게 부모는 때로 위안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강력한 스트레스 제공자이며 자녀는 이러한 예측 불

가능한 부모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어 분명한 행동전략으로 표현할 수 없는 행동 특성을 보이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병리적인 증상을 보이며 아동학대의 80%이상이 불안-저항애착을 보인다(이경희, 2015, 재인용). 이에 더해 선행연구들(고선자, 2004; 박혜주, 이순행, 최행훈, 방희정, 2005; Cassidy, 1994)에서는 불안정애착유형 중에서도 불안-저항애착은 어머니에게 극도의 의존성을 보이고, 과장된 부정적 정서성을 보이며, 양육자와의 격리에 대해 가장 큰 불안을 보여 정서조절 능력에 어려움을 가진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애착이 부모자녀간의 신뢰를 기초로 발달하므로 어머니의 일관적지 못한 양육태도는 자녀와의 신뢰감형성에 어려움을 가져오고, 자녀에게 정서적 혼돈을 주어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즉,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 중에서도 비일관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와의 불안-저항애착을 형성하게 되어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상기한 연구들은 주로 영유아기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나 구체적인 애착행동들은 유아가 발달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나 성인 이후에도 정서적·사회적 관계를 예측하는 요인(김인숙, 김유진, 김영희, 2010)이며, 후기 아동기의 정서, 사회적 능력은 모-자녀의 관계로부터 많은 영향력을 받고 있음이 보고(Mayer & Salovey, 1996)되었다. 즉, 후기 아동기에도 어머니의 애착유형과 자녀의 정서, 사회화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불안정 애착유형 중에서도 어머니의 비일관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불안감과 불신감을 더 고조시켜 정서적 혼란을 가져와 부적응적 정서조절능력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이러한 어머니의 일관되지 못한 양육태도가 ‘혼란형’ 집단과 ‘감정축소-비지지형’ 집단이 집단 간의 차이를 보이게 된 원인으로 여겨진다. 다시 말해, 두 집단 모두 비지지적 양육행동 특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비일관적 양육태도는 아동에게 정서적 혼란을 주는 요인으로 자녀의 문제행동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동의 부적응적 정서조절능력에 보다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단, ‘아동중심-감정코칭형’ 집단과 ‘과민-감정코칭 혼재형’ 집단에서 부적응적 정서조절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결과는 아동의 정서표현에 대해 과도하게 허용적인 태도는 제한설정의 부재를 초래하여 자녀의 정서조절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주장하는 Gottman 등(1996)의 연구와 상반되는 결과이다. 이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선행연구는 부족하지만 유사한 맥락의 연구들로 추론해보고자 한다. ‘과민-감정코칭 혼재형’집단의 경우, 아동의 부정적 감정표현에 대해 감정코칭반응을 보이면서도 과도하게 애정 및 수용적 태도가 혼재되어 나타난다는 점이 특징적인데 이는 한국의 문화적 양육행동 특성의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교문화 연구에서 미국아동은 부모의 과보호를 부모의 적대감이나 거부와 관련하여 지각하는 반면(Kim & Choi, 1994; Rohner & Pettemgil, 1985), 한국 아동은 부모의 관심 및 애정으로 받아들인다고 보고하였다(Kim & Choi, Rohner & Pettemgil, 1985). 이는 자녀가 어머니의 과잉 애정에 대해 자신과 과도한 일체감을 갖는다고 지각할수록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고 타인의 감정에 관심이 많으며(김성희, 정옥분, 2011; 진문주, 2010), 어머니의 과보호를 과잉애정으로 지각할 경우 청소년으로 하여금 문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합리적으로 해결(장혜정, 2010)한다는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과잉보호하는 부모는 불분명한 부모자녀경계로 인해 공격적 반응을 보이거나 자녀의 관점수용이 어려우며(Perez-Albeniz & De Paul, 2003), 자녀의 부적응적 정서 조절을 자극하여 사회적 유능감이 감소(Krause, Mendelson & Lynch, 2003)한다고 밝혀지며 과보호가 자녀에게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비일관적 연구결과가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 전통사회의 권위적이고 통제적인 양육태도가 자녀에게 악영향을 준다고 보고되며, 과거의 비수용적이고 억압적인 양육태도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아동의 욕구 및 감정수용을 강조하는 심리·교육적 이론이 부모에게 잘못 받아들여져 오히려 자녀에게 과도하게 애정적, 허용적인 과보호적 양육태도로 변화하며 자연스럽게 깊숙이 뿌리내려져 과보호적 양육태도가 한국사회에 보편화되어 나타났다(이선이, 이여봉, 김현주, 2008). 이와 더불어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보지 못하며 부모자녀 관계에서 서로의 부정적인 감정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지각하는 ‘동일체감’은 다른 나라와는 차별화되는 한국적 부모-자녀관계의 특징이라고 보고했다(최상진, 1994). 즉, 오늘날 부모의 교육수준과 자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아동 중심적 양육이론을 부모가 잘못 이해하며 부모자녀관계에서 과도한 일체감을 보이는 과잉 보호적 양육태도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감정코칭과 과보호적 태도가 혼재되어 있는 집단 또한 우리나라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한국적 특징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즉, 높은 감정코칭과 과민이 어느 정도 혼재되어있는 양육태도를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하나의 특징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선행연구들(김성희, 정옥분, 2011; 오지현, 2013a)에서 어머니의 과보호와 아동의 정서능력과의 관련성이 일관되지 않았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 중 하나로 볼 수 있겠다. 따라서 이러한 근거는 ‘과민-감정코칭 혼재형’과 ‘아동중심-감정코칭형’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이유라고 추정되며, ‘아동중심-감정코칭형’ 집단과 함께 ‘과민-감정코칭 혼재형’도 아동에게 애정으로 지각되는 한국사회의 특징으로 보이는 어머니의 반응으로 추론해볼 수 있으므로 두 집단이



유사하게 나타난 것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다.

요약컨대, 자연발생적 패턴에 의해 분류된 각 집단은 아동의 적응적 정서조절과 부적응적 정서조절 간에 유의미한 집단 차이를 보였다. 아동의 적응적 정서조절에는 감정코칭 지지적 집단들(‘아동중심-감정코칭형’ 집단, ‘과민-감정코칭 혼재형’ 집단)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비지지적 집단(‘혼란형’ 집단, ‘감정축소-비지지형’ 집단)간에는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부적응적 정서조절에는 감정코칭 비지지적 집단(‘혼란형’ 집단, ‘감정축소-비지지형’ 집단)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 감정코칭 지지적 집단들(‘아동중심-감정코칭형’ 집단, ‘과민-감정코칭 혼재형’ 집단)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아동의 심리적 안녕감, 긍정적 또래관계, 행복감과 같은 적응과 우울, 불안, 문제행동 등과 같은 부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각각 다르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아동의 적응적 정서조절과 부적응적 정서조절을 발달시키는 보다 밀접한 영향을 주는 요인 또한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유형이 자연발생적으로 조합되는 형태를 군집분석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어머니의 양육행동 유형들 간의 특징적인 조합을 파악할 수 있었다. 즉,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유형이 ‘아동중심-감정코칭형’, ‘과민-감정코칭 혼재형’, ‘혼재형’, ‘감정축소-비지지형’의 4개 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데에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특히 ‘과민-감정코칭 혼재형’의 발견은 한국사회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 중 하나로 추론해볼 수 있음에 의의가 있다. 또한 정서조절능력은 아동에게 있어 중요한 영역으로 어머니 반응유형 군집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의 이해를 넓힐 수 있었다. 따라서 형성된 군집들의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패턴의 특징들은 부모교육 및 상담 현장에서 아동의 긍정적 발달을 증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상기한 바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군집분석은 표본의 특성에 민감한 탐색적 성격을 지녀 추후 확인적 분석과정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 도출된 네 집단이 타당한지 검증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도출된 군집별 특성과 군에 따른 아동의 개인적 특성 변인들과의 해석에 보다 타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것은 본 연구의 한계로 꼽을 수 있겠다.

둘째, 정서조절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손경숙(2007)이 초등학생용으로 재구성하고 이를 원숙연(2015)이 아동평정용으로 재구성한 정서조절능력 척도를 활용하였으나 적응

적 정서조절능력의 신뢰도가 .49로 나타났다. 이는 ERC(The Emotional Regulation Check list)가 본래 부모나 교사 등 아동을 잘 아는 성인이 보고하는 도구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자기보고에 근거하여 측정된 것이 신뢰도가 낮은 원인으로 예상된다. 또한 ‘화, 불안, 짜증, 지나친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한 가지 활동에서 다른 활동으로 쉽게 바꾼다’, ‘나는 당황스럽거나 힘든 상황에서 계속 토라지거나 걱정하거나 슬피하는 상태로 남아있지 않고 빨리 마음이 편안해진다.’ 등과 같은 문항들이 척도의 변인 과정에서 아동이 이해하기에 어려워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추측하는 바이다. 하지만 기존연구(원숙연, 2015)에서는 적응적 정서조절의 신뢰도가 .68, 부적응적 정서조절이 .78로 나타났으며, 문항의 적절성 및 타당도를 고려해봤을 때 신뢰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는 것이 본 연구를 적합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져 사용한 점을 제한점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연구 설계 과정에서 아동이 지각한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의 보고에 기초하고 있어 아동의 자기보고에 근거하여 모든 변인을 측정하였다. 따라서 자기보고식에 의한 관계적 특성이 과장되거나 축소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아동 개인의 특성에 따라 어머니 양육행동의 질이 실제와는 다르게 나타나거나 보고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에 기초하고 있어 부모 모두에 대해서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아버지와 어머니는 차이가 있고, 자녀의 성별에 따른 부모 반응의 지각이 다를 수 있으므로, 추후에는 자녀의 성별에 따라 부모 모두의 반응을 각각 비교하는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 즉, 슬픔, 화남 등의 부정적 감정들을 따로 구분하지 않은 채 살펴보아 부모가 부정적 감정마다 보이는 태도의 차이를 살펴볼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어머니는 자녀의 슬픔을 수용하지만 분노감정에 대해서는 억압 및 통제 반응을 보일 수 있어, 이를 고려할 수 있는 추후 연구가 필요함이 사료된다.

## 참 고 문 헌

- 강지훈 (2003). 남녀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 및 공격성과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두현 (2011). 한국(韓國)의 문화(文化) : 아동의 인성발달을 위한 호행교육의 인식도 연구. **한국사상과 문화**, 60(단일호), 445-494
- 김미진 (2016). 부모의 양육태도 군집의 유형 차이 분석: 부모의 정서표현성과 유아의 또래 유능성을 중심으로.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2(2), 239-262.
- 김빛나, 진미경 (2014). 아동이 지각한 모의 양육태도와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정서조절 능력의 매개효과.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7(3), 329-344.
- 김성희 (2011).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과보호와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및 또래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성희, 정옥분 (2011).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과보호와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및 또래관계 :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18(3), 69-92.
- 김윤하 (2016). 아동의 기질과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인숙, 김유진, 김영희 (2010). 유아의 애착, 어머니의 양육방식,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교육과학연구**, 41(3), 175-202.
- 김지연, 남은영 (2011).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과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능력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32(5), 13-26.
- 김춘경 (2000). 부모의 과잉보호가 아동의 성격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개인 심리학적 분석. **놀이치료연구**, 4(1), 35-49.
- 남궁령 (2015). 어머니의 정서신념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유아 심리적 건강성의 매개효과. **한국유아교육학회지**, 35(6), 49-74.
- 노지영, 정운경 (2010).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에 따른 아동의 정서표현양가성과 정서표현신념.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23(2), 57-71.
- 박서정 (2004). 어머니의 정서사회화 행동과 학령기 아동의 정서조절 전략 및 정서조절 능력간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아청 (1998). 과보호의 발달심리학적 의미에 대한일고찰. **인간발달연구**, 5(1), 53-72.
- 박연성, 현은미 (2007). 남녀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한국가정관리**

- 학회지, 25(6), 83-94.
- 박지선 (2014). 발달적 관점에서 본 아동, 청소년의 정서조절.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9(1), 1-21.
- 박지현, 송하나 (2011). 자기조절능력 증진프로그램이 유아의 인지 및 정서조절 능력과 외현적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 **유아교육연구**, 31(1), 157-182.
- 손경숙 (2007). 공동생활가정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증진을 위한 집단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민진, 하은혜 (2010).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청소년 불안의 관계에서 부정적 인지의 매개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2), 459-477.
- 신주혜, 정윤경 (2013). 어머니의 정서관련 신념과 이에 따른 정서표현성 및 자녀의 부정정서 표현에 대한 반응.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26(3), 71-98.
- 오지현 (2010a). 어머니의 정서표현양가성, 양육행동 및 모-자녀 의사소통 유형의 관계-정서·행동 문제를 보이는 내담아동 어머니 집단을 대상으로. **인간발달연구**, 17(1), 33-48.
- 오지현 (2010b). 청소년의 특성분노, 모-자녀 간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 및 분노표현 방식의관계. **인간발달연구**, 17(4), 53-68.
- 오지현 (2013a).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척도 개발과 타당화.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지현 (2013b).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척도 개발과 타당화. **아동학회지**, 34(6), 97-122.
- 오지현 (2014).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과 아동의 정서지능 간 관계: 성별에 따른 탄력성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35(4), 61-78.
- 오지현 (2015).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동의 공감과 정서조절 방식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36(2), 17-37.
- 오지현, 이정숙 (2014). 청소년의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불안의 관계: 인지적 정서조절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9(1), 35-51.
- 원숙연 (2015). 부모상위정서철학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원숙연, 송하나 (2015). 부모상위정서철학이 학령기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 검증. **아동학회지**, 36(2), 167-182.
- 윤인애, 김광수, 하요상 (2012). 자기성찰지능 향상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심리적 안녕

- 감에 미치는 영향. **초등상담연구**, 14(2), 191-208.
- 이강이 (2007).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반응 비교, **한국생활과학회지**. 16(3), 455-463.
- 이경희 (2015). 아동 인성 형성에 미치는 영, 유아기 양육환경의 영향력. **동광**, 110(단일호), 79-115.
- 이선이, 이여봉, 김현주 (2008).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성별에 따른 지지적·통제적 양육행동. **한국인구학**, 31(2), 45-76.
- 장수연 (2016). 유아의 가정환경과 자기조절과의 관계에서 인성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인간발달학회**, 23(2), 21-39.
- 정명자, 임유경, 김동례 (2011).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20(6), 1109-1119.
- 정은영 (2008). 과보호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유진 (2012). 부모양육태도에 따른 군집과 아동의 개인내적 특성과의 관계 : 개인내적 특성 중 자아존중감, 내외통제소재, 자기통제력을 중심으로. **아동과 권리**, 16(2), 289-307.
- 조유진, 오지현 (2011). 모-자녀 간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의 군집과 특성분노 및 분노대처방식의 관계. **아동학회지**, 32(4), 99-113.
- 진문주 (2010).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자기조절능력과 또래관계와의 관계.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미경, 도현심, 차성혜 (2010).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아동의 정서지능의 매개적 역할. **아동학회지**, 31(4), 125-137.
- 허묘연 (200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2(2), 170-189.
- Cicchetti, D., Ackerman, B. P., & Izard, C. E. (1995). Emotions and emotion regulation in developmental psychology. *Development and Psychology*, 7(01), 1-10.
- Cloninger, C. R., Thomas R., Przybeck, & Dragan M., Svrakic. (1994). The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TCI): A guide to its development and use (pp. 19-28). St. Louis, MO: *Center for Psychobiology of Personality*, Washington University.
- Denham, S. A. (1997). "When I have a bad dream, mommy holds me".

- Preschooler's conceptions of emotions, parental socialization, and emotional compet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0, 301-319.
- Denham, S. A., Caal, S., Bassett, H. H., Benga, O., & Geangu, E. (2004). Listening to parents: Cultural variations in the meaning of emotion and emotion socialization. *Cognitie Creier Comportament*, 8, 321-350.
- Denham, S., & Kochanoff, A. T. (2002). Parental contributions to preschoolers' understanding of emotion. *Marriage & Family Review*, 34(3-4), 311-343.
- Dix, T. (1991). The affective organization of parenting: Adaptive and maladaptive processes. *Psychological Bulletin*, 110(1).
- Dix, T., Reinhold, D. P., Zambarano, R. J. (1990). Mother's Judgements in miments of anger. *Merrill-Palmer Quarterly*, 36, 456-486.
- Dunsmore, J. C., & Karn, M. (2001). Mother's beliefs about feelings and children's emotional understanding. *Early Education & Development*, 12, 117-138.
- Dunsmore, J. C., Her, P., Halberstadt, A. G., & Perez-Rivera, M. B. (2009). Parents' Beliefs about Emotions and Children's Recognition of Parents' Emotions. *Journal of Nonverbal Behavior*, 33, 121-140. doi: 10.1007/s10919-008-0066-6
- Eisenberg, N., & Fabes, R. A. (1994). Mother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Relations to children's temperament and anger behavior. *Merrill-Palmer Quarterly*, 40, 138-156.
- Eisenberg, N., Cumberland, A., & Spinard, T. L. (1998). Parental socialization of emotion. *Psychological Inquiry*, 9(4), 241-273.
- Eisenberg, N., Fabes, R. A., & Murphy, B. C. (1996). Parent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Relations to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nd comforting behavior. *Child Development*, 67, 2227-2247.
- Eisenberg, N., Fabes, R. A., Shepard, S. A., Guthrie, K. I., Murphy, B. C., & Reiser, M. (1999). Parental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Longitudinal relations to quality of children's social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70(2), 513-534.
- Eisenberg, N., Valiente, C, Morris, A. S., Fabes, R. A. Cumberland, A., Reise, M., Gershoff, E. T., Shepard, S. A. & Losoya, S. (2003). Logitudinal reacions among parental emotional expressivity, children's regulation, and quality of

- scio-emotional functioning. *Developmental Psychology*, 39(1), 3-19.
- Eisenberg, N., & Fabes, R. A. (1992). Emotion regulation and the development of social competence. In M.S. Clark (Ed.).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14. Emotion and social behavior*. Newbury Park, CA : Sage, 119-150.
- Fabes, R. A., Leonard, S. A., Kupanoff, K., & Martin, C. L. (2001). Parental 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s: Relations with children's emotional and social responding. *Child Development*, 72(3), 907-921.
- Fabes, R. A., Poulin, R. E., Eisenberg, N., & Madden-Derdich, D. A. (2002). The 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s scale (CCNES): Psychometric properties and relations with children's emotional competence. *Marriage & Family Review*, 34, 285-310.
- Fredrickson, B. L. (1998). What good are positive emotions?.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2, 300-319.
- Gottman, J. M. & Nahm, E. Y. (2007). **내 아이를 위한 사랑의 기술**. 서울: 한국경제신문.
- Gottman, J. M., Katz, L. F., & Hooven, C. (1996). Parental meta-emotion philosophy and the emotional life of families: Theoretical models and preliminary data.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0(3), 243-268.
- Gottman, J. M., Katz, L. F., & Hooven, C. (1997). Meta-emotion: How families communicate emotionally. Hillsdale, NJ, England: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Gottman, J. (1997). *The heart of parenting: How to Raise an Emotionally Intelligent Child*. NY: Simon and Schuster.
- Gross, J. J. (1999). Emotion regulation : Past, present, future. *Cognitive and Emotion*, 13(5), 551-573.
- Hessler, D. M., & Katz, L. F. (2009). Associations between emotional competence and adolescent risky behavior. *Journal of Adolescence*, 33(1), 241-246.
- Izard, C. E. (1997). Emotions and facial expressions: A perspective from differential emotions theory.
- Kim, U. C. & Choi, S. H. (1994). Individualism, collectivism and child development:

- Korea perspective. In P. M. Greenfield & R. R. Cocking (Eds.) *Cross-cultural roots of minority child development*.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Kring, A. M., Smith, D. A., & Neal, J. M. (1994). Individual differences in dispositional expressiveness: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Emotional Expressivity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 934-949.
- Malatesta, C. Z., & Haviland, J. M. (1982). Learning display rules: The socialization of emotion expression in infancy. *Child Development*, *53*(4), 991-1003.
- Morris, A. S., Silk, J. S., Steinberg, L., Myers, S. S., & Robinson, L. R. (2007). The role of the family context in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Social Development*, *16*, 361-388.
- Murray, C., & Greenberg, M. T. (2006). Examining the important of social relationships and social contexts in the lives of children with high incidence disabilities.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39*(4), 220-233.
- Parke, A. E., Halberstadt, A. G., Dunsmore J. C., Townley, G. E., Bryant, A. Jr., Thompson, J. A, & Beale, K. S. (2012). "Emotions are a window into one's heart": The qualitative analysis of parental beliefs about children's emotions across three ethnic group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77*(3), 1-144. doi: 10.1111/j.1540-5834.2012.00676.x
- Perez-Albeniz, A., & De Paul, J. (2003). Dispositional empathy in high and low-risk parents for child physical abuse. *Child Abuse & Neglect*, *27*, 769-780.
- Reichevach, L., & Masters, J. C. (1983). Children's use of expressive and contextual cues in judgements of emotion. *Child Development*, *54*, 993-1004.
- Rohner, R. P., & Pettengil, S. M. (1985). Perceived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and parental control among Korean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56*, 524-528.
- Rohner, R. P., & Rohner, E. C., (1978). Unpublished research data. Center for the study of parental acceptance and rejection. University of Connecticut, Storrs. CT.



- Saarni, C. (1990). Emotional competence: How emotions and relationships become integrated. In R. A. Thompson(Ed.), *Social emotional Development* (pp. 115-182).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Saarni, C., Munne, D., & Campos, J. J. (1998). Emotional development: Action communication and understanding. In W. Darson (series Ed) & N. Eisenberg (Vol.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pp. 237-309)*. New York: Wiley.
- Shields, A. M., & Cicchetti, D. (1995). The development of an emotion regulation assessment battery: Reliability and validity among at-risk grade-school children. Poster presental at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Indianapolis, IN.
- Shield, A. & Cicchetti. D. (1998). Reactive agression among maltreated children: The contribution of attention and emotion dysregulation.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7*, 381-395.
- Shields, A., Dickstein, S., Seifer, R., Givsti, L., Magee, K. D., & Spritz, B. (2001). Emotional competence and Early School Adjustment: A study of preschoolers at risk. *E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12*(1), 73-96.
- Yap, M. B. H., Allen, N. B., Leve, C., & Katz, L. F. (2008). Maternal meta-emotion philosophy and socialization of adolescent affect: The moderating role of adolescent temperament.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2*(5), 688-703.

## 부 록 목 차

부 록 1.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척도

부 록 2. 아동용 정서조절능력 척도

[부록 1]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척도

◎ 다음은 여러분들이 부정적 정서(화, 짜증, 불안, 슬픔 등)를 겉으로 드러내거나  
이에 대한 기분을 어머니에게 이야기 할 경우에 어머니가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반  
응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각의 문항을 읽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어머니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 한문항도 빠짐없이 √로 표시해주세요.

번호	“내가 부정적 정서(화, 짜증, 불안, 슬픔 등)를 겉으로 드러내거나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했을 때 대체적으로 나의 어머니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 주신다.					
2	나의 기분이 어떤 상태인지 과하게 신경을 쓰신다.					
3	내가 말을 해도 별 일 아니라고 말씀하신다.					
4	나의 마음이 진정 될 때까지 기다려 주신다.					
5	나를 지나치게 감싸주려 하신다.					
6	나의 얘기를 듣지도 않으시고 막연하게 ‘좋아지겠지’라고 하신다.					
7	내가 다음에는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같이 짜 주신다.					
8	내가 왜 이런 기분이 들었는지에 대해 물어 보신다.					
9	나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지나치신 것 같다.					
10	나의 기분이 어떤지, 왜 그런지 알고 싶지 않다.					

	않으시고 위로만 하신다.					
11	내가 기분이 좋아질 수 있게 옆에서 응원을 해 주신다.					
12	나를 위로해주시고 그 일을 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13	나보다는 오히려 어머니가 더 힘들어 하신다.					
14	나의 기분이 어떤지는 생각도 않으시고 내 실수나 잘못에 대해 지적하신다.					
15	내가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신다.					
16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기분을 이해하시는 것 같다.					
17	내가 말하기 부담스러울 정도로 내 걱정을 나보다 더 많이 하신다.					
18	'신경 쓸 일이 아닌데 왜 그러냐' 라며 관심을 크게 보이지 않는다.					
19	나를 안아주시거나 어깨를 두드려 주신다.					
20	나를 이해해주리라 생각하여 말하기 편하다.					
21	나의 마음보다는 어머니가 궁금한 얘기만 물어보신다.					

[부록 2] 아동용 정서조절능력 척도

◎ 다음은 여러분이 평소 생활에서 겪는 느낌이나 행동 등을 묻는 것입니다. 실제 비슷했던 상황을 생각해보고 어떻게 행동하였는지 각 문항별로 해당되는 곳에 √ 로 표시해 주세요.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명랑하다.					
2	나는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기분이 금세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한다).					
3	어른들이 나에게 말을 걸면 친절하거나 공손하게 대한다.					
4	화, 불안, 짜증, 지나친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한 가지 활동에서 다른 활동으로 쉽게 바꾼다.					
5	나는 당황스럽거나 힘든 상황에서 계속 토라지거나 걱정하거나 슬퍼하는 상태로 남아있지 않고 빨리 마음이 편안해진다.					
6	나는 계획했던 일이 힘들면 쉽게 그만둔다.					
7	나는 친구가 말을 걸면 친절하게 대하거나 친구의 말을 인정한다.					
8	나는 폭발하듯이 화를 내며 쉽게 짜증을 낸다.					
9	나는 다른 사람이 고통 받을 때 즐겁다(예를 들면, 친구가 다치거나 벌 받을 때 웃거나,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놀리는 것을 좋아한다).					

10	나는 흥분되는 상황에서 감정을 조절하거나 통제할 수 있다(예를 들면, 놀이 상황에서 지나치게 좋아하거나 즐거워하지 않는다).				
11	나는 어른에게 물어대거나 성가시게 붙어 다닌다.				
12	나는 남에게 방해될 정도로 흥분된 기분을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				
13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른들이 "안돼"라고 말하거나 못하게 하면 화가 난다.				
14	나는 슬프거나, 화나거나, 두렵거나, 무서울 때 말로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다.				
15	나는 놀이에 다른 아이를 끌어들이려고 할 때면 매우 흥분된다.				
16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그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바로 해버린다.				
17	나는 다른 사람이 당황스러워하거나 고통스러워하면 관심을 보이거나 걱정스러워한다.				
18	나는 내 감정을 지나치게 표현해서 다른 사람에게 방해되거나 괴로움을 준다.				
19	친구들이 나를 적대시하거나, 공격하거나, 참견하면 화, 두려움, 좌절, 고통 같은 부정적 감정을 표현한다.				
20	나는 놀이에 다른 친구들이 참여하려고 하면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빠진다.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